

미국 관세 유탄 맞을까... 전남 농가 위기감 고조

트럼프 행정부,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박... '농도 전남' 생존 위협
전남 한우협회 17일 상경 투쟁 예고... "정부 관세협상 때 농민 우선해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의 또 다른 압박 무기로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농도(農都) 전남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곡창지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한우 사육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새정부와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우 농가는 팔면 팔 수록 적자가 나는 '역마진' 구조를 3년 이상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데 닫힌 격'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완화까지 현실화하면 전남 한우 산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하고 있다.

16일 전남 농민단체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개최된 한미 협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당시 주요 무역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해 상호관세 협상 시한은 7월 8일로 유예됐지만, 보고서에서 지적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규제 완화 등 국내에서 민감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첫 협상에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대미 관세 전략에 따라 지역 농가들의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지역 농가들도 2007년 미국과의 첫 한미 FTA 타결 당시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진했던 악몽을 떠올리며 오는 7월 협상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은 주요 협상 대상인 소고기와 쌀 생산량이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협상에 따라 입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만 9315 t으로, 전국 17개 시도 쌀 생산량(358만 4543 t)의 19.8% 수준에 이른다.

한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쌀 관세로 513%를 매기고, 저율관세협정(TRQ) 물량 40만 8700 t에 대해서만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TRQ 물량 중 미국에 할당된 것은 13만 2304 t

수준인데, 미국은 TRQ 물량 확대 및 기본 관세 대폭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쌀은 국민 주식으로, '주권' 그 자체라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며 "국민의 주식을 위태롭게 하는 수입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식량안보는 경계심을 갖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특히 "쌀의 경우 현재 국민의 쌀 소비량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입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보다 쌀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은 전국 최대 쌀 생산지인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민에게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전남 한우 농가 역시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육값, 인건비 등 한우 생산비는 지속 상승한 반면 한우 도매가는 하락하면서 팔 수록 손해인 구조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적자로 인해 전남 한우 농가 수는 2022년 1분기 1만 6563가구였지만, 올 1분기(1만 4528가구)까지 3년만에 지역 내 한우 농가 2000여 가구가 사라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한우 농가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광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재석(47)씨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우보다 100kg 이상 도축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도 전국 소고기 소비량의 60% 이상이 수입인데, 소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유통마진 등으로 가격경쟁에서도 밀리는 한우는 소고기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을 비롯한 전국한우협회는 17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한우법 거부권 행사 이후 1년 만에 서울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윤순선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전국 한우협회 소속 농가들이 모이는 이번 상경 집회에서는 최근 농협의 사육값, 도축비 인상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 장벽 완화 반대 등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며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산업보다는 농민을 우선하는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용영 기자 zzang@kwangju.co.kr



16일 광주 서구 서창동의 한 논에서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오는 7월 8일 예정된 상호관세 협정에서 쌀과 소고기 관세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50만원 차등지원 유력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일반국민 총 25만원 받을 듯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차등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車개소세 6개월 더 인하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다.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100만원을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0.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의 단

력세율이 적용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서민들의 취사·난방·수송비 부담을 덜고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한 것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코로나 백신 접종할 곳이 없다 ▶6면

치매가 스며든다 - 치매 돌봄 노동자들 ▶18면

타이거즈 전망대 - 김도현 표정에 순위 바뀐다 ▶22면

전액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입학상담
☎ 062) 448-1188



▶ 훈련내용: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훈련비 전액지원,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